

부산, 中企 운전자금 1조3680억 공급... 자금난 해소 총력

추경 편성해 5000억 증액
5월 초부터 운전자금 공급
만기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원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이차보전 확대에 부담 완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추경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존보다 5000억 원 늘렸다. 원금 상환 유예와 원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해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부산시가 글로벌 경제 불안과 환율 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최대 수준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지역경제 안정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1조 36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5월 초부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 지원은 부산경제진흥원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14개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26년 안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운전자금 이용 기업에 대해

서도 부담 완화책을 마련했다. 해당 기업은 원금 상환을 6개월간 미룰 수 있으며 시는 유예 기간 동안 1.0~2.5%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와 BNK부산은행과 협력해 총 1000억 원 규

모의 원자재 공동구매 특화 정책자금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부산시는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공동구매 업무를 맡고 BNK부산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일반 기업 최대 8억 원이다. 명문향토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기업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보전율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앞서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 2000억 원과 환율케어 특별자금 2000억 원을 공급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8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번 자금 확대 공급이 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해 기업 애로사항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제54회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제5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 성년례는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축하하고,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성년 문화 정신을 심어주고자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기념식, 성년 의식(전통 성년례 재현),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20세가 되는 남녀 성년자 20명이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성년례의 의미 등 예절교육을 받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

우즈베키스탄과 전통문화 교류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8일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바크쉬 아트센터와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전통 문화예술 콘텐츠 상호 교류, 유네스코 문화예술축제 교류 및 협력, 국제 경연대회 및 공연 공동사업 추진, K-컬처 및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확산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전통문화자산을 기반으로 국제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산나물 축제서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캠페인 병행 퀴즈로 위기가구 관심 유도

영양군이 지역 최대 축제인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영양군은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소외된 가구 없는 '행복 영양'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퀴즈로 배우는 복지 상식... 방문객 호응 이끌어

군은 축제장 내 전용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위기 정보를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산나물 퀴즈로 배우는 복지 상식' 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숨은 위기 가구, 산나물 찾듯 세밀하게 살핀다"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사진.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의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산나물처럼, 위기 가구 역시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할 수 있다"며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서도 주변의 빈집이나 홀로 계신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민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 지속

영양군은 이번 축제 기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제 이후에도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진구, 외국인 의료관광객 6만명 돌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성장 견인 중국인 환자 전년비 329% 증가

부산진구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규모를 빠르게 키우며 부산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한 의료·숙박·쇼핑 연계 구조가 해외 환자 유입 확대를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6만1천여 명이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2024년 1만8천여 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236% 늘어난 수치다. 부산 전체 외국인 의료관광객 7만5천879명 가운데 80% 이상이 부산진구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의료관광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진구는 2023년 이후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록을 새로 쓰며 부산 의료관광 시

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성장 배경에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중심의 집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물론 쇼핑·교통 인프라까지 한 공간에 모이면서 외국인 환자의 이동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의료서비스와 관광 소비를 동시에 연결하는 체류형 의료관광 모델도 경쟁력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방문객 국적은 대만과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환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부산진구가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진행한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이후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분야에서는 피부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약 81%가 피부과 진료를 선택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 유가 상승 대응 민생 지원책 추진

9월까지 대중교통 환급 확대

창원특례시가 국제 유가 상승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산업·민생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는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보급,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올해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총사업비는 219억원 규모다. K-패스는 출퇴근 시차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

존처럼 100% 환급을 유지한다.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이용 부담을 줄였다.

친환경 교통 전환도 추진한다. 창원시는 5월 중 전기차 1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전환 시 최대 1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병행 중이며 신청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 정책도 확대한다. 시는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를 총 21대로 늘리고 탐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광주, 옛 망월묘역 민주공원으로 재정비

5·18단체와 사업 추진 합의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옛 망월묘역을 시민 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재정비한다. 광주시는 관련 단체들과 3년 넘는 협의를 거쳐 추모와 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 조성 방향에 뜻을 모았으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0일 5·18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옛 망월묘역 민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성 계획에는 추모공간과 전시공간 설치가 포함됐다.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도 함께 들어선다. 광주시는

옛 망월묘역을 '빛의 혁명발원지'이자 민주주의 교육현장으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차량 진입로를 새롭게 정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립 5·18민주묘지와 연결되는 진입로도 마련한다.

노후 시설 정비도 추진된다. 도시공사 사무소와 매점, 화장실 등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 방문자센터와 카페테리아 등 추모객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 공간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3월 관련 단체 대표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사업 방향을 논의해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대학교

야생·특수동물 전문 진료 시작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야생·특수동물 진료센터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전남대 동물병원에 따르면 야생·특수동물 진료센터는 조류, 파충류, 소형 포유류 등 다양한 특수동물과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특수동물 전문 진료 인력 부족으로 보호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야생·특수동물 진료 가능성이 됐다. 초대 센터장은 임해린 교수가 맡았다. 임 센터장은 전북대와 전북야생동물센터에서 야생·특수동물 진료를 담당했다. /광주=양수영 기자